



화단 및 분화용 깽깽이풀 재배기술

*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
Twin Leaf(Jeffersonia dubia) Native to Korea.*

깽깽이풀,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없다. 봄에 이 꽃을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이 꽃의 아름다움을 결코 잊지 못한다. 질서정연한 연보라색 꽃잎 가운데 곧게 선 수술들 모습이 과연 꽃으로 볼릴만큼 예쁘다. 추위에 강해 전국에서 길러볼 수 있으나 더위에 약한 편이며, 꽃이 피어있는 기간이 짧고 가을부터 겨울 내내 땅위에서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. 여름에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곳이면 화단용으로 뛰어나다. 특히 암석원 같은 곳에서 틈에 심어두면 나중에 균락을 이뤄 정말 고급스런 정원이 된다. 화분에 심어 분화용으로 감상할 수도 있다. 현재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되어 있을만큼 자생지에서 보기가 힘들어졌다. 뿌리는 약용으로 쓰인다.



송 정 섭
농업연구원, 이학박사
(031-290-6159,
songjs@rda.go.kr,
www.wildflower114.com)

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
(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
Institute, RDA)

1. 생태적 특성

깽깽이풀은 매자나무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. 우리나라 남부, 중부 및 북부지방과 중국의 흑룡성까지 널리 분포한다. 세계적으로 단 두 종이 분포하는데 그 중 하나이다. 자라는 곳은 산속의 냇가나 계곡이 연결된 숲으로 어느 정도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다. 줄



▲ 꽃을 가까이 들여다본 모습



▲ 만개된 한포기

아하는 환경이 노루귀, 얼레지 등과 비슷해 자생지에서 보면 이 들 들이 흔히 함께 자생한다. 비교적 그늘지고 서늘한 곳을 좋아하며 6-7월 이후의 고온기가 되면 지상부가 말라버리고 지하부는 휴면에 들어가게 된다.

2. 자라는 과정

겨우 내내 땅위에 흔적도 없다가 어느 봄날에 작은 꽃망울을 단 꽃대가 슬며시 나온다. 여러 개의 꽃대들이 올망졸망 나온 다음 햇볕을 받으면 꽃잎이 환하게 열린다. 꽃이 피고 있을 때 뿌리 쪽에서 잎들이 본격적으로 쑥쑥 나오기 시작한다. 전체적으로 보면 잎과 꽃은 거의 동시에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처음에는 꽃대나 꽃봉오리 전체가 적자색을 띤다. 잎은 둥글고 잎자루가 잎의 중간에 붙어있어 특이하며 잎의 모양이 연꽃 잎 작은 것처럼 생겼으며, 연꽃잎처럼

표면에 왁스층이 있어 물방울이 묻으면 베지 않고 또르르 흐른다. 꽃이 지고 난 다음 잎이 커지면서 잎자루도 자라는데 다 자라면 키가 30cm 정도까지 이르고 잎의 크기도 7~10cm에 달한다. 꽃이 진 다음 넓은 타원형으로 열매가 맺는데 열매의 끝이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고 길다. 이안에 까만 열매들이 들어있다. 씨앗에는 종자에 당분이 존재하는 밀선이 있어 개미 등의 곤충이 잘 물어서 전파시킨다. 따라서 자연상태에서는

개미들의 활동 범위 내에서 일정한 범위로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경우가 많다.

3. 재배기술

가. 번식

씨앗뿌리기와 포기나누기 모두 가능하다. 자연상태에서 비교적 결실이 잘 되는 종류로 꽃이 지면서 꼬투리가 쉽게 맺히고 5월 하순이후



▲ 암석정원에 잘 식재되어 있는 모습



▲ 자생지에서 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모습

꼬투리가 노랗게 익으면 종자를 딸 수 있다. 늦게 따면 꼬투리가 터져 씨앗이 튀겨나가 버리므로 꼬투리는 익어 터지기 전에 따서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리는 것이 좋다. 씨앗은 검은 색이며 타원형으로 수확하자마자 바로 뿌리는 것이 좋다. 8월 이전에 뿌리면 이듬해 발아하여 싹을 볼 수가 있으나 9월 이후에 뿌리면 이듬해 봄에 발아가 어렵다. 씨앗을 뿌려 꽃이 피기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. 꽃을 일찍 피우려면 포기나누기를 하면 된다. 옮겨심기는 비교적 잘 되는 편으로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바로 포기나누기를 하면 된다. 포기를 지나치게 세분하면 이듬해에 꽃이 피지 않으므로 한 포기에 4~5개의 눈이 붙도록 포기나누기를 하는 것이 좋다. 포기나누

▶ 꿩꿩이풀 뿌리는 시기에 따른 발아율 비교(2003, 정)

파종기(월)	7	8	9	10	11
발아율(%)	40.0	48.7	24	0	0

*매월 25일 파종하여 무기온 플라스틱하우스에서 관리

*발아는 2003년 3월 20일 경부터 시작됨

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늘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.

나. 정식 및 관리

화단용으로 기른다면 바람이 잘 통하여 서늘하고 반 그늘진 곳에 심어야 한다. 화분에 심은 것은 여름이 되면 발을 쳐서 약 50% 정도 차광해 주는 것이 좋다. 햇볕에 직접 닿으면 잎이 갈변하여 말라버린다. 분갈이는 2~3년에 한번씩 한다. 분갈이 한 다음에도 꼭 그늘을 만들어 준다. 건조한 곳

보다는 약간 습한 곳을 좋아하지만 지나친 수분은 싫어한다.

다. 시비 및 병충해 방제

정원이나 화단에 기를 때는 심기 전에 잘 썬 부엽퇴비와 유기질의 고품비료를 넣어 준다. 생육 중에는 생육상태를 봐 가면서 4종 복합비료를 물에 타서 잎면에 직접 뿌려주면 영양회복에 매우 효과적이다. 화분에 기를 때는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시작하면 액비를 2~3주일에 한번씩 3번 정도 주면 된다. 봄에 화분갈이 할 때나 화분갈이를 한 후 유기질 고품비료를 식물체 주위에 뿌려준다. 병과 해충은 별로 없는 편이지만 연간 2~3회 정도 예방차원에서 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려준다. 🌿